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86.70	↓ 코스닥	683.49
	(-19.16)		(-1.36)
↓ 금리 (연율)	2.529	↓ 환율 (원/달러)	1462.85
	(-0.055)		(-3.75)

침체 빠진
태양광업계
해외서 활로 찾는다
02



韓 26%, 베트남 46% ‘高관세’… 공급망 타격 초비상

트럼프發 글로벌 관세전쟁

中 34%·日 24%·EU 20% 등 전 무역상대국에 ‘10%+α’ 관세
美 FTA 체결국 중 韓 최고 높아
中·베트남도 고율 관세 부과로
현지진출 국내기업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현실화 됐다. 관세 부과 대상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무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양국간 ‘제로 관세’였던 우리나라로서는 경쟁국 대비 관세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정부는 2일(미국 현지시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이달부터 26% 관세가 부과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발표시 패널에는 관세율이 25%로 표기됐으나, 백악관은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시된 26%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 부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로 역

대 최고치였다. 미국 기준 우리나라는 8위 무역적자국이다.

더욱이 한미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었던 걸 감안하면 우리측 타격은 경쟁국 대비 더 커질 전망이다. 또 한미FTA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미국측과의 FTA개정 협상에 떠밀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월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 등 우리 주요 기업 진출이 많은 중국(34%), 베트남(46%), 인도(27%) 등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된 국가에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면서, 현지 진출 기업도 간접 영향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를 부과한 미국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율은 미국이 66.2%로 멕시코(35%), 캐나다(32.6%), 일본(7.6%), 한국(7.5%) 등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골드만삭스는 12개월 후 미국 경기침체 확률이 기존 20%에서 35%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국제 무역통상 지도도 바꿀 전망이다.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즉각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팽배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맞대응 방침을 밝혔고, 중국은 기존 관세에 대응해 농산물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이다. 나아가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



증시 떨어지고, 환율 뛰고

코스피가 전 거래일(2505.86)보다 19.16포인트(0.76%) 하락한 2486.70에 마감한 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84.85)보다 1.36포인트(0.2%) 낮아진 683.49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66.6원)보다 0.4원 오른 1467.0원에 마무리했다.

/뉴시스

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과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일 긴급 ‘민관 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열고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환율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오늘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 주문 읽는 즉시 효력발휘

혼잡 우려…尹 직접 출석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3개월여 만에 드디어 결정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릴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모든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3일째 되는 날 헌재의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적 분노·혼란을 불러온 만큼,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우선 4일 오전 11시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등 8인의 재판관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라한 후, 문 대행이 “지금부터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다.

결정문을 낭독한 후에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히면, 탄핵소추는 인용된 셈이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한다. 반면 헌재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내지는 각하)한다”고 밝히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재판관 사이의 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엔 주문을 우

선적으로 낭독할 수도 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쟁점이 모두 5가지인 만큼 30분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모두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다.

하지만 헌재가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거친데다, 주요 쟁점 외에도 재판 중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낭독에 1시간 가량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가 결정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경우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

美 관세폭탄에 아시아 증시 ‘검은 목요일’

통상 전쟁 확산에 투자 심리 무너져
코스피·닛케이·항생지수 일제 하락

더 짙어진 통상전쟁 전운에 아시아 증시가 줄줄이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통상전쟁 양상이 격화되자 세계 각국 투자 심리가 무너진 것이다.

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6% 떨어지며 2500선이 무너진 2486.70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0.20% 하락한 683.49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 1조40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이날 3시30분 기준 0.4원이나 오른 1467원으로 마감했다. 원·엔 환율은 같은 시간 996.33엔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 시각 기준가인 977.77원보다 18.56원 급등했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27일(1000.71원) 이후 최고치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시장들도 줄줄이 ‘검은 목요일’을 보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등이 1~2%대 하락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후 선물시장에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가격(나스닥100지수선물, 다우존스지수선물, S&P500지수선물, 러셀2000지수선물)은 급락했다. 상호관세 발표 전 정규장에서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밤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면서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국민 통합 절실”
▲ 우원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피해보상에 국회가 앞장서자”
/사진 뉴시스

▲ 민주 “명태군이尹·洪 부부회동 성사…홍준표 정계은퇴 약속 지켜야”
▲ 안철수 “조기 대선시 나만 이재명 이길 수 있다”

▲ 국방부,尹 복귀해도 2차 계엄 없다… “불수용 입장 유지”
▲ 합참의장, 5군단 찾아 “DMZ 적 활동 더 세밀히 관찰하라”